



+ 은총! 저는 한국관구 소속인 강희라 스텔라 수녀입니다. 1993년 2월에 수녀원에 입회하여 2003년도에 종신서원을 하였습니다. 수녀원에 입회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정 동안 내내 수녀님들의 환대와 밝은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4년 동안 성소피정을 다니며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식별을 통해 응답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첫 사도직인 피정 집을 시작으로 여러 교구에서 본당수녀로써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계신 하느님을 섬기며 마더 씨튼 말씀"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합니다."를 삶 안에서 실천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후 언어치료 공부를 시작하였고, 졸업 후, 2014년에 목포시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언어치료사로 파견 받았습니다. 현재는 순천 연세언어발달 연구센터에서 언어치료사로 임상경력을 쌓으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어치료사 사도직을 수행하며 만나는 대상자들은 다문화가족아동들과, 자폐스펙트럼, 지적장애, 뇌병변장애 등에 의해 동반되는 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신경언어장애로 세상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지닌 이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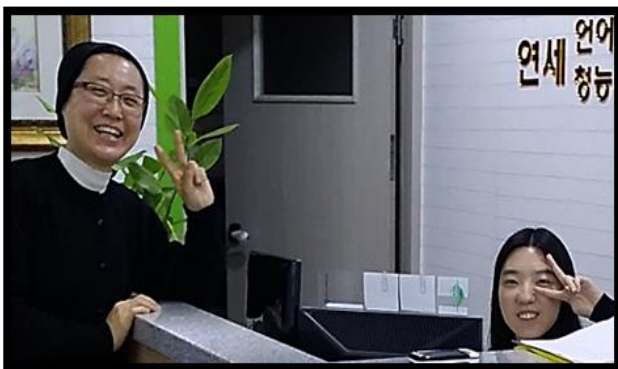
연구소를 찾아오는 대상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생각을 긴 문장으로 이야기하는데 제한적이며 길어야 3-4어절 수준입니다. 하루 종일



대상자들과 언어치료를 하다보면, 선생님들이나 수녀님들과 대화 할 때, 내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아 곤혹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조음장애를 지닌 아동의 발음을 치료할 때는 제가 아동이 내지 못하는 음소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조음위치와 조음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공중화장실에 앉아서 조음점과 조음위치를 찾는다고 웅얼웅얼하며 혼잣말을 하다 나오다가 화장실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제가 그들의 소리가 되어주고 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하느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 것인지 궁금해 하며 하루하루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be with you!

My name is Sister Kang Hui Ra. I entered the community in February 1993 and made perpetual vows in 2003. Before knowing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I was seeking for ways leading to a happy life. At that time, I came to know our Sisters and participated in vocation retreats for four years. The Sisters were so welcoming and joyful that I could not help being attracted by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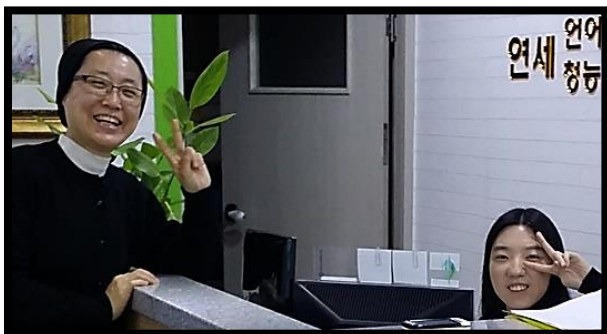
Finally, I began my religious life. I have had experiences of working in retreat houses and parishes. I tried to live my religious life bearing in mind Mother Seton's words of "To live joyfully, we have to love and to love, we have to sacrifice ourselves."

I also studied language therapy and worked at Mokpo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in 2014. Now I am working as SLP (Speech-language pathologist) at Yonsei Speech and Language Clinic to help the marginalized and the poor in the local society.

Most of the people that I meet in my workplace are th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ose who have autism spectrum disorder, intellectual disability, 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 with the symptom of brain lesions, articulation and phonology disorder, fluency disorders, and neurologic speech-language disorder.



They cannot communicate well, meaning they can speak out just three or four syntactic words to deliver their thoughts to others. Spending many hours with those people, I sometimes forget my words when I have to talk with the teachers and our Sisters. One day I was in a public rest room and absorbed in finding the articulation place and its point for one of my clients with phonologic disorder by making a sound and imitating the sounds of the client. Every one there



gave me a strange look. I hope that I can be the voice and ears for those who have difficulties in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I still wonder what kind of gift and grace will be given to me from God through meeting with the people whom I encounter each day.